

## 2. 4大 地方 選舉와 證市에 미치는 影響

- (選舉 費用) 최소한의 法定 選舉 資金만도 4천1백22억 원에 이를 전망
- (經濟에 미치는 影響) 選舉 公約의 남발과 선거 비용의 시중 유출로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이 예상됨
- (證市에 미치는 影響) 선거 직후부터 주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정부의 통화환수 정책 등으로 인해 그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임

### (4大 地方 選舉와 選舉 費用)

- 재정경제원은 3월 27일 「선거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번 4대지방 선거 비용으로 최소한 4천1백22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선거는 통상 현금 통화를 늘려 선거전부터 물가를 끌어 올리고 산업 생산과 고용 사정도 크게 위축시킴. 특히 이번 선거는 선출 인원과 후보자 수가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해 파급 효과가 더욱 클 것임
  - 정당에 제공하는 국고 보조금은 민자 4백54억 원, 민주 3백58억 원, 신민 1백16억 원 등으로 책정되었음. 이중 약 50%가 지자체 선거 비용으로 지불될 것으로 예상됨. 여기에 후보자들 개인이 지출하는 자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2조 원 이상의 선거 자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됨

#### < 법정 선거 비용 규모 >

구분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합계
	기초	광역	기초	광역	
선거비용(억원)	2,000	665	661	796	4,122

### (選舉가 經濟에 미치는 影響)

- 選舉 公約의 남발로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소비 성향이 강한 선거 자금의 일시적인 시중 유출로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이 예상됨
  - 과거 선거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總通貨, 民間消費, 輸入은 예상과는 달리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現金通貨는 선거자금의 현금화로 단기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음
    - 消費는 경기확장기인 '81년, '87년에는 선거후까지 증가세가 지속되었음
  - 産業生産 및 輸出은 생산 인력의 선거 운동원으로서의 유출, 선거일 휴무로 감소되었음. 그러나 경기 확장기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物價는 인플레이 기대심리, 행정 지도력 이완 등으로 선거전에 상승하였음
    - 경기확장기인 '87년에는 선거후까지 상승세 지속

(選舉가 株式 市場에 미치는 影響)

- 과거 6대 선거를 전후한 분석 결과 주가는 景氣 擴張 局面에서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景氣 收縮 局面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음. 그리고 회사채 수익률의 경우에도 주가와 같은 움직임을 보였음
  - 주가의 경우 景氣 擴張 局面에서는 선거 실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景氣 收縮 局面에서는 주가가 선거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92년 대선의 경우는 예외로 상승세를 보였음
  - 회사채 수익률의 경우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상승세를 보였고,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음

< 선거와 주식시장 >

구분	경기순환국면	주가(월평균)			회사채수익률		
		1개월전	선거당월	2개월후	1개월전	선거당월	2개월후
'81.3 총선	회복기	104.4	105.0	121.8	28.1	24.9	33.8
'85.2 총선	불황기	140.0	135.7	136.1	14.8	14.9	23.8
'87.12 대선	호황기	477.5	488.7	644.4	12.9	12.7	14.6
'88.4 총선	호황기	624.9	643.5	711.0	13.2	14.6	21.2
'92.3 총선	후퇴기	651.3	615.8	589.3	19.4	17.8	16.0
'92.12 대선	불황기	645.1	650.3	668.7	16.0	13.8	12.4
'95.6월 전망	호황기	(+)	(+)	(-)	(-)	(-)	(+)

주) (+) 상승, (-) 하락

- 주가는 선거 前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다 선거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 설 전망이며, 회사채 수익률은 풍부한 시중 자금의 영향으로 선거 前에는 하락하다 선거 이후 정부의 강력한 통화환수 정책 등으로 다시 상승할 전망이다
  - 특히 이번 선거는 경기가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데다 실시 시기도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6월이어서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주식 시장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현금화된 대기성 선거 자금의 일시적인 유출로 인해 선거 이전에는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주식 공급 과잉과 하반기 경기 정점 도래에 따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책에 따른 통화 긴축 정책의 영향으로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풀리는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 회사채 수익률은 하락세를 유지하겠으나, 이들 선거 자금은 소비성이 매우 강하여 환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物價 上昇 壓力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정부의 강력한 통화 환수 정책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회사채 수익률은 선거 이후 다시 상승할 전망이다 (천 일 영)